

양돈농가의 자녀교육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이 달부터 돼지고기가 완전 수입개방되고 한편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양돈산업의 외형액은 약 1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천억 내지 천오백억이 양돈농가의 소득이 되는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3천5백억원 정도가 양돈농가에 혜택이 가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한다.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우, 낙농, 양계가 모두 어렵고 양돈만 봄철의 자돈폐사, 국제 돼지가격의 상승(화란, 독일의 돈콜레라와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국내외 모두 돼지 질병때문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되는 것이 없다고 불경기를 한탄하는데 양돈이 이만한 것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있는데 다름아닌 초·중·고 과외

산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고교의 과외비용이 약 9조6천2백48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국민총생산의(GNP) 2.24%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이다. 양돈산업 1조5천억원의 6.4배에 해당된다.

더군다나 아직은 외국기업이 침투할 수도 없고 불황이 없이 급속한 성장 추세에 있으며, 분뇨처리, 전염성 질병 등 골치 아픈 문제도 없는 산업이다.

요즘 자라는 학생들이 야구선수 등 인기 운동선수가 되면 몇 억씩 계약금을 받는 것을 부러워 하는데 인기 학원선생도 월 5천~1억원대 수입은 보통이고 학원에서 스카웃할 때는 거액의 스카웃 비용은 물론 아파트, 고급 승용차 등이 덤으로 따라와 판·검사나 인기 운동선수에 못지 않는 인기 직업이 되었다.

이들도 양돈을 하는데 '돼지키우기'라고 하여 부유학생에게 월 1~2백만원 정도를 받고 단기

“

양돈농가 중에는 자녀교육 때문에 도시에 아파트를 사놓고 별거생활을 하면서 학교선생님에 촌지를, 과외 선생님에게는 돼지 사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오지로 들어가면서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사육 규모를 키우면서 사람구하기가 힘들며, 자녀교육비 외에도 동네사람 눈치 살피고 찬조금과 봄가를 놀이때 마다 협찬금 지출 등 공식, 비공식 비용지출에 시달리게 된다.

”

비육하여 대학입시라는 시장에 출하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돈도 있고 머리도 괜찮은 수퍼돼지는 비육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왜 돼지키우기 사업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부치는지 알만 하다.

2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학교 여교사 한 사람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것을 장부를 만들어 철저히 기장하였는데 향수 등 값진 선물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로 쌓여있고, 현찰 수입만 월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월백여만원의 봉급을 받으며 꼬박꼬박 갑근세를 내는 월급쟁이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장부기장은 양돈농가들이 배워야 할 것이며 아마도 이 교사도 연말 정산을 통하여 정식 봉급과 촌지 수입, 선물수입 등에 대한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철저히 기장하므로써 학급 전 학생들로부터 촌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라서 정치인이 되면 떡값, 정치자금으로 사과상자 또는 여행용 가방을 통해 돈세탁이 용이한 현찰을 받게 되는가 보다.

이런 돈들은 불황이 없고 장부와 필기도구 외에는 지출이 없어 바로 수입이 소득이 되는 호황

업종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지출은 온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며 양돈농가도 부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외국처럼 돼지 한마리 1만원 소득으로는 자식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양돈농가 중에는 자녀교육 때문에 도시에 아파트를 사놓고 별거생활을 하면서 학교선생님에 촌지를, 과외 선생님에게는 돼지 사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오지로 들어가면서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사육 규모를 키우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며, 자녀교육비 외에도 동네사람 눈치 살피고 찬조금과 봄가를 놀이때 마다 협찬금 지출 등 공식, 비공식 비용지출에 시달리게 된다.

양돈농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직업에 대한 긍지와 보람이 없으면 양돈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분뇨처리문제, 생산된 돼지고기에 유해성 물질 잔류문제, 종업원 문제, 방역위생문제 등 각종 밝힐 수 없는 지출과 압력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일에 이제는 힘을 쏟아야 한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철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